

CSF 이슈분석



2017-13

「경제」

2016년 중국의 지역별 GDP 실적을 통해 본 2017년 경제전망

■ 중국

김동하 교수
부산외국어대 중국학부

💡 주요내용

- 2016년 중국의 GDP는 6.7%를 기록하여, 6년 연속 하락세를 시현함.
- 2016년 중국 주요 지역들의 GRDP(지역내 총생산) 성장률을 보면 28개 지역중 8개 지역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음.
- 또한 28개 지역이 밝힌 2017년도 GRDP 성장률 목표치를 보면, 8개 지역만이 전년도 실적대비 상향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2017년 중국 경제성장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며, 우리 기업들은 주요 수출대상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지역별 내수부양책에 착안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됨.

1. 이슈 현황

■ 2016년 중국 전체 GDP 성장률은 6.7%를 기록하여, 6년 연속 하락세를 시현함.

- 국가통계국은 1월 20일 2016년 중국 GDP를 74.4조 위안으로 전년비 6.7% 증가한 것으로 1차 발표함
 - 1월 20일에 발표된 국가통계국의 1차 수치는 각 지방정부 발표 GRDP를 1차적으로 산정한 결과이며, 추후 6개월간의 검증 작업을 거친 최종 통계 발표시에는 통상 0.1%포인트 정도의 가감이 있어 왔음

표1. 연도별 중국 GDP 실적				
연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
GDP	7.8%	7.3%	6.9%	6.7%

자료 : 국가통계국 (2017.1)

- 2016년 GDP 결과치는 중국이 이미 중속 성장(신창타이)을 선언한 상태에서 시장의 기대치 내에 있는 수치이나, 중요한 것은 6년 연속 하락세를 시현한 점에 있음
 - 국가통계국에 따르면, 2016년 4분기 GDP가 전년동기대비 6.8% 증가했으며, 이는 같은 해 1~3분기 성장률 6.7%를 소폭 웃도는 수준임
 - 이로써 지난해 중국 성장률은 2010년 10.6%를 기록한 이후, 6년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, 텐안먼 사건 직후인 1990년 3.9%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
- 2016년 둔화 요인은 수출과 내수의 부진에 기인함
 - 성장 감속 주된 요인 중 하나인 수출 부진은 인건비와 기타 경영비용 상승으로 수출 거점으로서 중국의 경쟁력이 저하되고, 무역흑자도 축소된 것에 기인함
 - 2016년 무역액은 전년비 0.9% 감소했으나 이는 -7%를 기록한 2015년에 비해 감소 폭을 크게 축소시킨 결과임. 이중 수출은 2.0% 감소했고, 수입은 0.6% 증가했음
 - 또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 신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GDP 구성 요소(투자, 순수출, 소비)의 균형 잡힌 운영을 달성하지 못함
 - 2016년 공장과 건물에 대한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비 8.1% 증가하여, 2015년(10%)보다 신장 폭이 축소됨. 이는 1999년 이래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임. 제조업을 비롯한 민간투자는 3.2% 늘어나는데 그쳐 2015년 10.1%에서 대폭 위축됨. 국유기업의 인프라 투자가 20%로 확대됐으나 민간투자의 부진을 메우진 못함

- 2016년 공업생산도 전년비 6.0% 증가해 2015년(6.1%) 수준에 머무름. 특히 구조조정 중인 철강과 석탄의 생산이 크게 축소됨
- 개인소비를 보여주는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2016년에 10.4% 증가해, 경제 성장을 주도했으나, 2015년(10.7%)보다 소폭 둔화 됨

□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

- 일부 중국 내 애널리스트를 중심으로 2016년도 4분기 GDP 예상치는 6.7% 수준이었으나, 이를 넘어선 6.8%를 기록한 것을 근거로 2017년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
- 또한 2016년 중국 전체 GDP 6.7%는 26년만의 최저치임에도 불구하고, 중국 정부가 연초 제시한 목표 구간(6.5~7%)에도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평가임

■ **2016년 중국 각 지역별 GRDP(지역내 총생산) 성장률을 보면, 28개 지역중 8개 지역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**

□ 인민망에 따르면 28개 지역(성, 직할시, 자치구) 중 베이징, 톈진, 네이멍구 등 20개 지역은 연초 설정했던 경제성장 목표치를 달성한 반면, 시짱, 허베이, 산시, 후베이 등 8개 지역은 목표치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남

- 1월 20일 인민망은 2016년 및 2017년 각 지역의 '정부공작보고'와 실제 2016년 통계공보 수치를 종합하여, 28개 지역의 GRDP 현황을 분석함

□ 28개 지역중 13개 지역이 GRDP 증가율 8% 이상을 기록하여 2016년 중국경제를 견인하였음

- 톈진, 푸젠, 안후이, 장시, 허난, 후베이, 후난, 충칭, 구이저우, 윈난, 시짱, 칭하이, 닝샤 등 13개 지역이 8% 이상 성장했음
- 8% 이상 성장한 이들 지역 중 6개는 서부권이고 5개는 중부권이어서, 서부대개발과 중부굴기 국책 사업이 2016년 중국경제를 견인한 것으로 판단됨
- 28개 지역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시현한 지역은 11.5%를 성장한 시짱 지역과 10.7% 성장을 기록한 충칭지역임

□ 2015년 GRDP 총량 3조 위안을 넘어선 거대 경제권은 광둥, 장쑤, 산둥, 저장, 허난, 쓰촨 등 6개 성이었으나, 2016년에는 중부권 후베이와 후난성이, 화북권의 허베이성이 3조 위안을 넘어섬

- 2016년 GRDP 최대규모 지역은 광둥성(7.93조 위안)이며, 최소 지역은 칭하이 성으로 2610억 위안 수준임

- 2016년에 설정한 GRDP 성장률 목표치를 미달성한 8개 지역은 허베이, 산시(山西), 네이멍구, 랴오닝, 후베이, 후난, 광시, 산시(陝西) 등 지역임
 - 이들 지역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지역은 산시 지역으로 당초 6% 내외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나, 실제 4.5% 내외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산시성 정부공작보고에서 보고되었음
 - 이는 산시성 경제의 2/3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석탄 관련 분야의 부진에 기인함
- 이외에도 목표 미달지역이 '정부공작보고'에서 밝힌 미달 사유는 다음과 같음
 - 산시성은 8% 목표치에서 0.4%포인트 부족한 실적을 거둔 이유를 성장구조 전환과정에서 나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음
 - 후베이성은 9% 이내 목표를 제시했으나, 8% 실적을 거두었으며, 그 주된 이유로 신창타이에 적응을 하지 못하였고, 특히 민간투자가 급감된 것을 들었음

■ **28개 지역이 밝힌 2017년 GRDP 성장률 목표치를 보면, 이들 중 8개 지역만 2016년 실적치 대비 상향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음**

- 각 지역은 '정부공작보고'에서 2017년 경제성장 목표치를 제시했는데, 12개 지역이 8%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, 2016년 실적치 대비 1곳만 줄어든 현황을 보이고 있음
 - 8% 이상 성장 목표 지역은 텐진, 안후이, 푸젠, 장시, 후베이, 후난, 충칭, 구이저우, 윈난, 시짱, 산시, 닝샤 등임
 - 이들 지역중 2016년 실적치 보다 2017년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지역은 텐진, 후베이, 후난 3개지역이며, 반면에 높게 설정한 지역은 시짱, 닝샤 두 곳임
- 2017년 목표치를 전년 실적치 대비 높게 설정한 지역은 8개에 불과하고 이들 중 대부분도 그 증가폭이 크지 않음
 - 이들 8개 지역은 허베이, 산시, 네이멍구, 지린, 헤이룽장, 후베이, 광시, 산시 등임
 - 네이멍구는 2016년 7.3% 내외 실적을 거두었으나 2017년에는 7.5% 내외의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침
 - 6.9% 실적을 올린 지린성이 제시한 2017년 목표치 역시 7% 내외이며, 6.1% 내외 실적은 거둔 헤이룽장성도 2017년 목표치는 6~6.5%로 제시함
 - 8% 실적을 거둔 후베이는 8% 내외로, 7.3% 실적을 거둔 광시는 7.5% 내외를 제시함
- 2017년 목표치를 전년 실적치 대비 낮게 혹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한 지역은 20개에 달함
 - 실적치 대비 2017년 목표치를 낮게 잡은 대표적인 지역은 허난(8% → 7.5%), 구이저우

(10.5% → 10%), 칭하이(8% 내외 → 7.5% 내외)를 들 수 있음

표2. 중국의 각 지역별 GRDP 목표와 실적

지역	2016년 목표 (%)	2016년 실적 (%)	2016년 총량 (조 위안)	2017년 목표 (%)
베이징	6.5	6.7 내외	2.45	6.5 내외
톈진	9	9 내외	1.8	8
허베이	7 내외	6.8 내외	3.18	7 내외
산시(山西)	6 내외	4.5 내외	1.34	5.5 내외
네이멍구	7.5	7.3 내외	1.9	7.5 내외
랴오닝	6 내외	n.a.	n.a.	6.5 내외
지린	6.5~7	6.9	1.57	7 내외
헤이룽장	6~6.5	6.1 내외	1.6	6~6.5
상하이	6.5~7	6.7	2.67	6.5 내외
저장	7~7.5	7.5 내외	4.6	7 이상
안후이	8.5 내외	8.7	2.4	8.5 내외
푸젠	8.5	8.5 내외	2.8	8.5 내외
장시	8.5 이상	9	1.8	8.5 내외
허난	8 내외	8 (전망)	4	7.5
후베이	9 내외	8	3.2	8 내외
후난	8.5 내외	8 내외	3.1	8 내외
광둥	7~7.5	7.4 이상	7.93	7 이상
광시	7.5~8	7.3 내외	1.8	7.5 내외
충칭	10 내외	10.7 내외	1.75	10 내외
쓰촨	7 이상	7.5	3.2	7.5 내외
구이저우	10	10.5	1.17	10
윈난	8.5 내외	8.5 내외	1.53	8.5 내외
시짱	10 이상	11.5	1148억 위안	11 이상
싼시(陝西)	8 내외	7.6 내외	1.9	8 내외
간수	7.5	7.6	7085억 위안	7.5
칭하이	7.5 내외	8 내외	2610억 위안	7.5 내외
닝샤	7.5 이상	8 이상	3120억 위안	8 내외
신장	7 내외	7.6	9550억 위안	7 이상

주: 각 지역이 공포한 2016년 및 2017년 <정부업무보고> 및 최근 (2016년 지역통계공보)에 기초하여 정리.
 자료: 인민망(2017.1.20.)

2. 전망과 시사점

■ 중국 주요 지역들의 금년도 경제 성장 목표치를 종합해 보면 2017년 중국 GDP는 전년 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

□ 28개 지역중 전년실적비 2017년 목표치를 상향조정한 곳은 8곳에 불과하고, 이들마저 상향 폭이 크지 않는 것에 주목함.

- 이들 8곳은 평균 0.2~0.3%포인트 수준의 상향 목표를 제시함

- 또한 상향 목표를 제시한 8곳 중 GRDP 총량 3조 위안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은 2곳에 불과함
 - 3.18조 위안 GRDP 규모를 가진 허베이성이 7% 내외의 목표치를, 3.2조 위안 규모의 후베이성이 8% 내외의 목표치를 제시했음
 - 중국 최대 규모 GRDP와 수출실적을 가진 광둥성은 2016년 7.4% 이상의 경제성장 실적에도 불구하고, 2017년에는 7% 이상의 목표를 제시한데 그침

■ **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 지역에 대한 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, 내수 목표 기업 역시 지역별 성장 동력에 착안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**

-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랴오닝, 산둥, 상하이, 장쑤, 베이징, 톈진, 광둥 지역 중 2017년도 경제성장 목표치가 전년비 상향 조정된 곳은 한 곳도 없음
 - 랴오닝성과 상하이시, 베이징시의 경제성장 목표치는 6.5% 내외임
 - 반면, 톈진시는 8%, 광둥성은 7% 이상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음
- 또한,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한 지역(2014년 기준) 역시 광둥성, 장쑤성, 산둥성, 톈진시 지역이어서 수출 전망이 밝지 않다고 판단됨. CSF

출처

- 2016年国民经济实现“十三五”良好开局, 国家统计局 (2017.1.20.)
- 28省区市2016年GDP出炉 8地未完成预期目标, 人民网 (2017.1.20.)
- 2016中国gdp总量:28省GDP出炉 8地未达标!(解读), 人民网 (2017.1.20)
- 2016年地方GDP增速排名:广东去年同比增逾7.4%, 证券时报网 (2017.1.19)
- 2016年中国GDP超预期:GDP达74.4万亿影响几何?, 新浪新闻 (2017.1.20.)
- 중국경제론(박영사. 2015)

💡 CSF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이슈분석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